



쇼스타코비치 '바비 야르'

빛고을 두번째 무대 오른다

광주시향 정기연주회...내달 24일 광주예당 대극장 피아니스트 신창용·베이스 김대영 역대급 협연 선사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가 광주에서 재연된다.

광주시향은 다음달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83회 정기연주회 '교향악축제 프리뷰: Babi Yar' 무대를 선사한다.

이날 공연은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함께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포문을 연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으로 서정적이고 시적인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공연 후반부에는 베이스 김대영, 노이오페라코리스와 함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Babi Yar)'



신창용

김대영

를 연주한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이 곡의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쳐 과감하고 수준 높은 연주 역량을 선보인 바 있다. 협주곡 협연자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2017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2016년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2년에는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레이먼드 E. 버크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교향곡 협연자 베이스 김대영은 특유의 색채감 있는 연기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호평을 받고 있다.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극장과 바이마르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다음달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정된 2024 교향악축제 프리뷰 무대다. 광주시향은 24일 광주 공연을 마친 뒤 곧바로 2024 교향악축제에 참여, 같은 출연진과 프

로그램으로 무대를 펼쳐낸다.

앞서 광주시향은 2023 교향악축제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과 11번을 연주해 역대급 호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교향악축제에서 조명하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인 만큼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36회를 맞이한 예술의전당 2024 교향악축제는 전국 23개 교향악단과 국제 콩쿠르 수상자,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고전부터 현대 창작곡에 이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공연은 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중계로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광주 공연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부터 입장할 수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ACC 아카이브 연구모임 참가팀 모집

29일까지 접수...총 3팀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아카이브 연구모임 참가팀을 공개 모집한다. AC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CC 아카이브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올해는 총 3팀을 선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오는 29일까지 ACC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연구모임은 ACC 소장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작가나 기획자, 활동가, 연구자 및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팀은 2인에서 10인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는 ACC가 소장한 아카이브 전문주제 컬렉션에서 선정하면 된다.

모임에 선정된 팀은 오는 12월까지 ACC 특별열람실을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연구관련 아카이브 자료 열람,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우수 연구 선정 자료집 제작 등 지원을 받는다. ACC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확산하고, 창·제작 원천소스로 활용하고자 아시아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장 아카이브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ACC 아카이브 연구모임'에서는 아시아문화예술 연구자, 작가, 기획자,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7개 팀 30여 명이 참여해 아카이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공개 세미나와 칼럼 등으로 그 성과를 공개했다. 이강현 전담장은 "ACC 소장 자료에 관해 함께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장희구 박사 (543)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水北亭晴嵐(수북정청람) - 일창유치웅
아득히 푸른 나무 하늘에 떠있고
이름난 정자가 나루터에 서 있는데
햇빛에 가벼운 바람 강물이 흐르네.
蒼茫樹色接天浮 一處名亭古渡頭(창망수색접천부 일처명정고도두)
暖日輕風微雨過 鴻濛積翠濼江流(난일경풍미우과 홍몽적취양강류)

하늘·땅은 저렇게까지 푸른 강을 출렁였다니



아지랑이 기운은 봄 하늘을 수놓았다. 너울너울 춤추는가 했더니만, 달아날 듯 달려들 듯한 춤사위가 봄 하늘을 장식한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 춤사위가 아늑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지랑이 봄기운은 분명하다. 백마강 줄기를 빙빙 도는 삼천 궁녀의 원혼이 아늑하게 하는 착각에 빠진다. '저 멀리 백의 함성까지도 들리는 듯, 아득히 푸른 나무 빛 하늘에 떠있는데, 어느 한 곳 이름난 정자가 옛 나룻가에 서있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하늘과 땅은 아득히 푸른 강은 출렁인다'(水北亭晴嵐)로 제목을 붙여 본 절언절구다.

작가는 일창(一滄) 유치웅(兪致雄:1901-1998)으로 서예가이자 교육자다. 1952년부터 1972년까지 학교법인 보인·명지·오산학원 이사,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성균관부관장, 1974년 국전 추천작가, 1976년 국전 초대작가, 1977년 국전 심사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던 현대의 거물과 같은 인물로 알려진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아득히 푸른 나무 빛 하늘에 떠있는데 / 어느 한 곳 이름난 정자가 옛 나룻가에 서있구나 // 따스한 햇빛은 가벼운 바람에 부슬비가 지나가고 / 하늘과 땅은 아득히 푸른 강은 출렁이며 흐른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수북정 아지랑이 기운'으로 번역된다. 수북정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마강변 자운대 언덕에 조선 광해군 때 양주목사를 지낸 김홍국이 지은 정자다.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옛 일을 회상하면서 읊미할 수 있는 멋을 지닌 시상이다. 옛 나무 머리에 지난 일을 간직하면서 '해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인 이내를 띠고 있음이 회상된다. 시를 읽으면 맛이 절로 나는 정중동의 한 극치를 보이는 시상이다.

시인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도취돼 잠시도 눈을 돌릴 틈도 없이 시낭(詩囊)을 훌훌 털어내는 시상을 만났다. 아득히 푸른 나무 빛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데, 한 곳의 이름난 정자가 옛 나룻가에 서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선율에 띄어 보내기 용이한 선경(先景)의 시상치고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말해주는 듯도 하다.

화자는 정(情)을 담기보다는 경(景)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시상을 펼쳐 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따스한 햇볕 가벼운 바람에 부슬비가 지나가고, 하늘과 땅은 아득히 푸른데 강은 출렁이며 흐른다 했다. 수북정의 아름다움과 옛 역사 한 페이지를 들어키는 넉넉함이 보이는 시상이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嵐:산 속에 생기 있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蒼茫:아득하게 차다, 樹色:물빛, 接天浮:하늘에 접해 떠 있다, 名亭:이름난 정자, 古渡頭:옛적 나룻가 부두, 暖日:따스한 햇볕, 輕風:가벼운 바람, 微雨:부슬비, 鴻濛:천지자연의 원기, 積翠:겹친 푸른빛, 청산:뜻밖, 濼:출렁거릴 양.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완주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